

#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 광주에 등지 뜬다

### 데이터·플랫폼 등 7곳 유치 AI 산업생태계 조성에 협력 광주법인·기술개발 등 추진 강 시장 “성과 창출에 최선”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AI기업들의 광주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아리사코리아, 피피텍코리아, 카비, 씨에이에스, 젠데이터, 메사쿠어컴퍼니, 어노테이션에이아이 등 7개의 AI 기업들과 157~16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은 법인 이전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아리사코리아 이결 대표이사, 피피텍코리아 임훈 대표이사, 카비 이은수 대표이사, 씨에이에스 전영하 대표이사, 젠데이터 함민혁 대표이사, 메사쿠어컴퍼니 이지훈 대표이사, 어노테이션에이아이운동국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2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시-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이다. 기업 대표들은 “협약을 통해 AI 중심도시 광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광주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AI 선도도시를 선언한지 6년 만에 기업 스스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다”며 “광주시는 국가데이터센터와 인재양성사다리 완성,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도심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을 체결한 아리사코리아(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솔루션

개발기업이다. ㈜피피텍코리아는 마케팅 프로모션 시장의 AI, 빅데이터 기반 분석, 최적 후보 추천 플랫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카비는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운전행태와 교통 환경을 분석하는 기업이다.

㈜에이에스는 국내 최초 정보기술(IT)감리법인으로 세계 최초 IT거버넌스 자동화 도구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이 입증된 회사다.

㈜젠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선도 기업으로 AI 데이터 구축 및 AI 모델 개발 등 100건 이상 B2B, B2G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메사쿠어컴퍼니(주)는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응용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제1급 용권 얼굴인식 기술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참고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어노테이션에이아이는 빅데이터 AI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설립 2년만에 기술신용평가(TCB) T4등급을 획득해 코스닥 기술 특혜 상장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평가 됐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 우치동물원 ‘그랜트 얼룩말’ 2마리 출산

### 암컷 2마리, 각 1마리 씩 낳아

광주 우치동물원관리사무소는 그랜트 얼룩말 2마리가 태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에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새끼 1마리 등 총 4마리의 그랜트 얼룩말이 지내고 있었다. 이중 암컷 두 마리가 지난 달과 이달 각각 새끼 1마리씩을 낳아 얼룩말 식구는 모두 6마리로 늘었다.

그랜트 얼룩말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며, 몸길이는 2.2~2.4m 정도다. 새끼 그랜트 얼룩말은 태어난 뒤 1년여간 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란다.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도 보기 힘든 얼룩말 새끼가 어미젖 먹는 장면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랜트 얼룩말들이 살고 있는 얼룩말사를 공개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 “주민 의견 우선” 무안서 두 번째 군공항 설명회

### 주민 300여명 참석… 높은 관심

전남도는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군 공항 이전 바로알기 강연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달 8일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무안군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영 세한대학교 교수는 ‘무안 국제공항 국내선 통합 및 광주군 공항 전남 이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전남

도, 광주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합의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이전 후보지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에 전남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은 지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없다”며 “도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객관적 정보 전달 기회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을 정부기관 이전이나 국방부 주요시설의 유치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소시설로 낙인찍혔던 교도소와 방폐장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치 시설로 재인식한 강원 태백과 전북

남원, 경북 경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 “군부대는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가족 이주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지역 교육 및 문화 공동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연회에서 확인한 높은 관심은 올바른 결정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공론화 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군 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 전남 포럼 개최에 이어 6월 한 달간 강연회를 2회 개최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항지 기자

##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본격 착공

### 남악 오룡~일로 복룡 13.2km 2027년 개통… 1523억 투입

전남도가 가로수 숲길과 전망대, 쉼터를 함께 조성해 세계적인 명품 드라이브 코스를 목표로 개설 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미개통 구간을 착공한다.

전남도는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총연장 52km의 지방도 825호선 마지막 구간인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2단계 개설공사’는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서 일로읍 복룡리까지 13.2km 구간이 대상이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2개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총사업비는 152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5년으로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7년 준공되면 영산강 강변도로는 전 구간이 개통된다.

스포츠·관광·레저 등과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 도로로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남악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몽탄까지 1단계 34km 구간은 지난 2020년 3월 개통했다.

지난해 8월엔 ‘2-1단계 구간’인 무안 몽탄에서 일로 복룡리까지 4.8km 구간을 완공해 현재 통행 중이다.

그동안 영산강 주변 사·군 주민과 자전거 동호회,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도로 이용객들은 강변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염원해왔다.

여기에 무안 오룡지구 개발 후 남악 나들목의 차량 정체가 심하게 교통량 분산을 통한 남악과 오룡지구 출퇴근 차량 교통 체증 해소도 시급한 실정이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 주민과 영산강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한 건의 사고 없이 정성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 “주말엔 광주서 문화체험 행사 즐기세요”

###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아트피크닉·야시장 등 풍성

광주시는 함께 놀이하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주말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아트피크닉 △예술의 거리 축제 △남도달밤야시장 △광주비엔날레 및 파빌리온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FC 홈경기 관람 등이 있다.

가족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플라마켓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피크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오는 7월1일 중외공원에서 아트 스테이지·상상놀이터·아트캠프 등 연령대별 맞춤형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예술인과 시민이 다채로운 예술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동 예술의 거리 축제 아트공동은 7월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올해는 ‘엄청나게 시끄럽

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공동’이라는 주제로 원데이클래스·플라마켓·야외공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더운 여름에 낭만이 가득한 대인예술 시장 남도달밤야시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먹거리와 한평갤러리·대인놀이터·길위의 문화공연·별별 상상정원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양림미술관, 이강하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9개국 파빌리온 전시는 7월9일 막을 내린다. 관객 친화적 도슨트 프로젝트 등 새로운 도전 덕분에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했다.

7월 7-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제12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린다.

189개 공방의 271개 부스에서 지역 우수공예품부터 명장 작품, 공예품대전 입상작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

다. 전시 공예품 구매, 체험부스 참여도 가능하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10월까지 이어진다. 6월 열린 스노스 프린지는 스트리트댄스 공연 방식으로 펼쳐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장을 관람객 열기로 가득 메웠다.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축제가 재개될 예정으로, 광주 곳곳에서 분산형 소규모 프린지를 개최해 광주 교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에 준비한다.

광주시 지난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1년 만에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광주FC)의 홈경기 관람도 추진했다.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7월2일 광주·울산, 7월15일 광주·대구 경기가 예정돼 있다. 8월4일은 광주·대전, 8월27일은 광주·수원 경기가 열린다. 관람석 예매는 광주F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요성 광주시문화체육실장은 “시민의 행복한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 흥미롭고 유쾌한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